프리즘

러시아·동유럽어의 표기문제

송상용 한림대 교수·본지 편집위원

편집자들에게 가장 골치아픈 문제의 하나가 외국어 표기이다. 해방후 혼란을 거듭했던 외래어 표기법은 대폭 개선된 문교부안이 언론·출판계에서 채택되어 안정을 찾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적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재작년부터 갑자기 불어닥친 공산권 바람은 러시아·동유럽어 표기의 혼란을 가져왔다. 일부 출판사들이 비현실적인 문교부 표기법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표기를 강행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 되어간다. 열린책들 洪池雄사장의 「외래어 표기법 有感」(「출판저널」제48호)을 읽고 느낀 점을 뒤늦게 적어 본다.

우선 영어식 표기를 하지 말고 원음표기에 충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동감이다. 이것은 문교부안의 문제는 아니지만 많은 출판물이 무지한 탓에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오래전에 나온 K씨의 「러시아革命史」가 철저히 영어식 표기를 해서 눈에 거슬렸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르바뜨', '고리끼'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문교부안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k, r, t의 무기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교부안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 20년전 現代科學新書의 기획에 참여했을 때 원음표기, 무기음 표기, 된소리 표기를 관철시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다. 이제는 나도 후퇴해서 문교부안을 따르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출판사들은 '까뮈', '쁘띠'를 고집하고 있다. 문교부안 자체도 중국어에는 무기음을 허용해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데 슬라브계 언어들은 더욱 복잡하므로 이 문제는 재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표기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즈베스티아(차)', '파스테(체)르나크' 등 구개음화를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 러시아어의 B는 남한에서는 '브', 북한에서는 '우'로 쓰는데 '프라브다'를 '프라우다'로 적는 것도 일관성이 없다.

원음표기에도 한계가 있기는 하다 '마스끄바', '가르바초프'까지 가야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러나 고쳐야 할 것은 많다. '바르샤바', '프라하', '부쿠레슈티'는 원음을 따르면서 '부다페슈트'는 '부다페스트'(영어식)로 쓰고 있으니 답답하다. 하기야 문교부안도 '주네브'를 '제네바'(영어식)로 쓰는 실수를 했지만 말이다. 신문들은 에트레 헝가리대사의 이름 '샨도르'를 여전히 '산도르'로 쓰고 있다. 정부와 언론, 출판계는 시급히 이 문제를 연구해 더 나은 표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4월10일까지 「출판저널」독서퀴즈 담당자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60호 (4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중 5명을 추첨, 금성교과서(주)에서 펴낸 「뉴에이스英語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호 독서퀴즈는 한국현대소설의 '공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출제했습니다. 여기서의 '공간'이란 소설의 작중무대가 되는 직접적인 지역공간 뿐 아니라 작가의 중요한 창작동기가 되었을 작가적 상상공간도 아울러 의미합니다.

문제 1

다음에 제시한 작가, 작품, 작품의 공간 등 세 그룹의 항목들을 읽고 그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끼리 연결하여 주십시오(예 ; ①-바-C)

[작가]①김동인 ②염상섭 ③채만식 ④이효석 ⑤김동리 ⑥김원일 ⑦이문구 ⑧양귀자 ⑨윤흥길 ⑩현기영

[작품]가)노을 나)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다)밀다원시대 라)관촌수필 마)원미동사람들 바)배따라기 사)변방에 우짖는 새 아)탁류 자)메밀꽃 필 무렵 차)삼대

[작품의 공간] a)부천 b)성남 c)평양 d)군산 e)대천 f)제주도 g)서울 h)진영 i)봉평 j)부산

문제 2

이정환의 「까치방」, 송영의 「선생과 황태자」, 이호철의 「천상천하」는 감옥이란 특수상황을 작품공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조해일의 「심리학자들」과 이청준의 「살아있는 늪」이 공유하고 있는 작품공간은 무엇이겠습니까?

①병원 ②버스 ③공원 ④열차

문제 3

천승세의 「황구의 비명」, 강석경의 「밤과 요람」은 기지촌이 작품의 배경입니다. 그럼 조해일의 「맨드롱 따또」, 정도상의 「친구는 멀리 갔어도」, 복거일의 「높은 땅 낮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①광산촌 ②학교 ③섬 ④군대

문제 4

다음에 든 네편의 소설 가운데 월남전을 그 작품공간으로 삼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① 최상규의 「나방과 거품」
② 박영한의 「인간의 새벽」
③ 이상문의 「황색인」
④ 황석영의 「탑」

제56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6호(2월20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46통, 이중 정답자는 12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자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곡		오	영	수		태	평	천	하
예		뇌			방			변	
사	반	의	십	자	가			풍	
		무		유		상		경	아
무	녀	도		종		록			리
진			마		화	수	분		랑
기		청	록	집				잉	
행			열			겨	울	여	자
	만	세	전		분			인	
	가			객	지			간	

당첨자

김유중(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우체국 사서함 77호 교수부 국어과)

이석영(인천시 남구 용현1동 123-9)

한정자(경기도 부천시 심곡1동 806-9호 36통2반)

박무선(대구시 서구 평리2동 112-22)

곽미경(전남 여천군 화양면 화양고등학교)

출판저널

통권 제58호/1990년 3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鎭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부장——康鐵柱
기자—— 李權雨 鄭素淵 崔兌源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李羲天 崔炳天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진식자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자문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洙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鏞廈 安秉永
安輝濤 吳光洙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瑾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勝羽 李元馥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鎭弘
鄭丙圭 曺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가나다 순)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